# 장성호 물안개와 어우러진 '웰빙 하우스'

■장성군 북하면 구명우·박애순씨 황토집

구명우씨가 정원에서 나무를 손질하고 있다. ㄱ자형 24평 규모의 목재 황토집을 짓기 위해 구씨는 황토와 나무 등 자재를 직접 골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황토와 나무 등 자재 직접 골라 건축비 적게 들어
## 황토집 입주 후 고혈압 호전되고 체중도 4kg 감량
## 서각·수석 등 취미활동도 전원생활 즐기는데 한몫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백양사IC를 빠져나와 백양사 방향으로 5분정도 달리다 보면 야트막한 고개인 곰재가 나온다. 장성군 북이면과 북하면의 경계인 곰재를 넘어서면 오른쪽으로 장성호 상류가 눈앞에 펼쳐진다.

구명우·박애순씨 전원주택은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하웅마을의 중간 도로변인 장성호를 오른쪽으로 끼고 도는 호반도로 초입에 자리잡고 있다. 24평인'ㄱ'자형 목재 황토집을 중심으로 앞면에 정원과 주변에 텃밭이 집을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주택이다.

하지만 구씨 부부의 집은 여느 농촌주택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많다.

황토집 처마밑에 새겨진 '화제초가(和齊草家)'라는 초서체의 서각(목판에 서예체로 새겨진 글씨)부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구명우(63)씨 호인 '화제'를 본뜬 것으로, 자신의 소박한 집이란 뜻이다.

서각은 거실 곳곳에도 붙어 있다.

'구름처럼 물처럼 살아라'는 의미의 '심여운수(心如雲水)'부터 자신이 가장 좋아한다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무구(無垢)'까지 모두 구씨가 직접 새긴 것이다. 구씨 집이 남다른 것은 서각처럼 집 짓기에서부터 실내 장식까지 모두 구씨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이다.

1998년 광주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을 끝으로 교육행정직에서 명예퇴직한 구씨는 퇴직신청 2~3년전부터 전원생활을 계획했다. 전원주택지로는 자신의 고향을 택했다. 장성호 조성으로 수용됐던 부모님의 밭 가운데 일부를 댐 조성후 다시 사들였다. "지금 이 자리가 어머니의 콩밭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전원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은만큼 이왕이면 부모님의 체취가 묻어있는 곳에 집터를 잡고 싶었습니다."

구씨는 이후 틈만나면 장성을 오가며 황토와 나무 등 자재를 직접 골랐다. 구씨는 이를 '제비가 제 집을 짓기위해 흙과 지푸라기를 물어다 나른 것'에 비유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2003년 6월 집을 완공했을때는 남들보다 건축비가 훨씬 적게 들었다. 황토만 사용할 경우 갈라지는 점을 막기위해 생석회를 혼합해 벽면을 발랐지만 방만은 일부러 황토만을 고집해 통풍을 원할하게 했다.

목재 황토집을 선택한 이유도 건강과 함께 최대한 자연과 가깝게 살기 위해서다. 구씨는 지병인 고혈압이 있는데 이곳에서 산 이후로는 혈압이 낮아졌고 체중도 4kg이 줄었다.

"도시에서 살다보면 일부러 헬스클럽에도 다녀야 하지만 시골생활은 본인만 부지런하면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낄수 있습니다."

구씨는 "이곳에선 봄철 산나물을 캔다든지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도 매일 3시간 정도 걷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생활비도 월 100만원이 채 들지 않는다.

구씨가 만족스런 전원생활을 즐기는 데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서각외에도 수석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다. 집 안팎에 있는 수석 작품만 수백점에 달하는데 강원도 평창에서 수집한 월석(달이 새겨진 돌)과 사람 모습이 그대로 새겨진 인물 형상석을 가장 아낀다. 거실 천정을 장식하고 있는 새와 용 모양의 조명도 그가 주변의 나무를 주워와 만든 목각 작품이다.

구씨는 퇴임후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특히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시골에 내려오다 보면 지인들이 없어 자칫 무력감에 빠질수 있는만큼 미리 취미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단지가 아닌 개별주택을 지어 이주할 경우 지역주민과의 관계설정도 전원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라고 말했다. 고향이 아닌 타지에 자리를 잡는다면 주민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씨는 전원생활의 가장 큰 이점으로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는 점을 꼽았다. 마음 내킬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자연인이 되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했다. "매일 호수를 쳐다보며 살다보면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던데" 라는 질문에는 "호수에서 피어나는 황홀한 물안개를 보면 그런 생각은 사라질 것"이라며 일부 사람들의 기우라고 단언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단열 뛰어나고 원적외선 함유
### '목구조 황토집' 전원주택 인기

사람과 가장 친근한 건축 소재가 바로 '나무'와 '흙'이다. 골조는 목재로, 바닥·지붕·벽체는 황토로 지은 목구조 황토집은 나무와 흙이 지닌 장점들을 모두 안고 있어 전원주택으로 가장 인기가 있다.

황토는 원적외선을 다량 함유해 인체 흡수가 잘 되고 열에너지 방사율이 높다. 황토집에 사는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다", "실내공기가 쾌적해 마치 집 밖에 있는 것 같다"와 같이 말하는 것은 생리작용을 활성화 하는 원적외선 때문이다.

단열 효과도 뛰어나다. 황토는 외기(外氣)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므로 자연스러운 냉·난방 효과는 물론 주택 내부의 습도조절 기능까지 한다. 나무 또한 통풍 및 단열효과가 높고 생리활성 물질을 배출해 인체에 이롭다.

목구조 황토집의 이같은 장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좋은 목재와 황토를 선택해야 한다.

황토의 경우 순수 황토인지 시멘트 등 첨가물이 혼합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순수 황토로 만든 흙벽돌이라도 압축강도가 낮으면 안된다. 물로 반죽해 만든 벽돌(압출공법)이 생황토 벽돌(압축공법)보다 내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만약 압축공법으로 만든 벽돌인데도 내수성이 뛰어나다면 황토에 첨가물을 혼합한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구명우씨의 거실은 그가 직접 만든 서각과 목각, 수석 작품들로 가득차 있다. 구씨는 전원생활을 제대로 즐기려면 자신만의 취미활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